

고전을 통해 본 올바른 受胎방법 고찰

김태현* · 김경호**

大韓醫藥氣功學會

I. 緒論

올바른 受胎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앞에 우리는 受胎가 우리에게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에서 부인과 전통교재로 쓰이고 있는 《婦人科學》의 목차를 살펴보면 “1장 부인과적 문진, 진찰과 수술\ 2장 여성생식기의 해부학\ ……\ 20장 불임증\ ……\ 42장 난소의 간질성 및 특이종양\ 43장 임신성 음모성 질환¹⁾” 이렇게 나와 있는데 受胎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내용은 “20장 불임증”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受胎와는 별 관계가 없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개론\ 2. 임상적 관리\ 3. 자궁경부인자\ 4. 자궁 인자\ 5. 난관 및 복막인자\ 6. 난소인자\ 7. 면역학적 인자\ 8. 남성인자\ 9. 배란유도법\ 10. 체외수정²⁾”으로 나와있다. 해부병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기계적 접근일 뿐 생명과 태아의 입장에 있질 않다. 受胎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연 受胎가 무시되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동양의 많은 고전들은 묻고 있다. 본서에서는 고전에 나와있는 受胎에 대한 현대인이 생각지 않는 여러 의미있는 사실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受胎가 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 올바른 受胎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적 가치를 밝혀볼 것이다.

프리드리크 르브와이에의 《폭력없는 출산》에서는 “우리는 등과 척추의 작용에 의해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다. 그곳이 긴장되어 딱딱해지면 호흡장애가 일어난다. 이래서는 그 사람의 앞길이 캄캄하다. 그 사람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불구자가 되어 버리는가. 탄생 이후의 짧은 시간 동안이다.”³⁾라고 하여 출생을 하는 그 짧은 시간동안 생의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출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생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그리스인은 아이 쪽이 스스로 원하고 행동하여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이 옛

*, ** 대한의료기공학회

1) 대한 산부인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婦人科學,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1, 7월 10일 개정판

2) 上揭書 目次

3) 프리드리크 르브와이에 : 폭력없는 출산, 서울, 하소, 1995. p.221

이야기는 거의 진실에 가깝다. 현대의학은 진통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아기의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⁴⁾ 프리드릭 프브와이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출생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면 진정한 탄생은 언제인가? 티벳死者의 序를 보자 “만일 믿음이 약하고 진리에 익숙하지 않아 死者가 지금까지 들려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사후세계의 환영이 그를 압도해 그는 자궁 입구를 찾아 방황하게 될 것이다”⁵⁾라고 하여 출생이후의 세계가 아닌 출생전의 세계, 즉 사후세계에서의 受胎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나중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그대는 자궁 속으로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최고의 환희를 체험하며, 그 상태에서 무의식 속으로 기절해 버릴 것이다. 나중에 그대는 알 모양으로, 또는 태아 상태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⁶⁾라고 하여 受胎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회의 덧인 탄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궁문을 닫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受胎되는 시점을 사후세계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탄생의 시작이 출생이 아닌 受胎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과정일 뿐일 출생의 상황이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탄생의 첫 시작인 受胎의 상황은 아기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동양의 여러 고전에서 受胎와 관련된 내용과 올바른 受胎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본론 및 고찰

1. 受胎의 중요성

《婦人秘科·濟陰通元賦》에는 “가을이슬이 꽃가지에 점점이 떨어지니 玉粒이 가히 맺을 수 있다. 春風이 복숭아꽃을 치니 금빛 비늘이 스스로 뛰는구나. 陰이 陽을 감싼즉 붉은 계수나무에 싹이 나고, 陽이 陰을 감싼 즉 붉은 연꽃이 꽃받침을 토하는구나. 天地의 큰 뜻이요, 生民의 본始니라. 함부로 말하지 날지어다”⁷⁾라고 하여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 수정란이 형성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수태에 대한 경솔한 언급을 경계하고 있다. 시적인 표현 속에서도 옛 사람들의 수태에 대한 생각과 수태를 중히 여기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서양의학계에서는 妊娠이나 분만, 유아교육, 태교 등에는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연구중이지만 受胎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동양의학에서도 여러 고전들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그리 강조시 되지는 않았고 현대에 와서는 사주학 분야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더더욱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 韓醫學 고전에서조차 受胎에 대해서 求嗣編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건강이나 醫學적 관점보다는 세대유지나 得男에 더 초점을 맞추

7) 陳夢雷 :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卷364 p.98

가을이슬, 춘풍, 陽은 精子를 뜻하고 꽃가지, 복숭아꽃, 陰은 卵子를 뜻한다. 금빛비늘, 붉은 계수나무, 붉은 연꽃등은 수정란을 말하고 싹이나 꽃받침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은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했지만 대단히 사실적인 안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4) 上揭書, p.160

5) 파드마삼바바 : 티벳死者의 序, 서울, 정신세계사, 2000, p.408

6) 上揭書, p.418~419

고 있다. 《婦人良方大全·求嗣文·陳無擇求子論第一》에서는 “夫婦가 있으면 반드시父子가 있게 마련이고, 혼인을 한 후에는 반드시 자식을 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인들이 불효에 세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자식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⁸⁾라고 하여 嗣를 求하는 것을 제일의 효라고 하여 강조하고 있다. 여러 의서들은 질병을 治療하는 것에 맞춰서 임상을 염두해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受胎라는 것이 질병이란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는 곧 불임의 범주로 생각되어 질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가문의 대를 위해서나 求嗣의 方을 위해서 의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受胎가 求嗣의 의미로 협소화되어 다뤄진 듯이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受胎가 인간의 총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文意이다. 《胎教神記諺解》에서는 “아버지는 낳고, 어머니는 기르고,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 모두 같은데 다만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병에 걸리기 전에 잘 治療하고, 가르치길 잘하는 사람은 낳기 전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이 십년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열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열달 뱃속에서 어머니가 잘 가르쳐도 아버지가 一日之生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⁹⁾라고 하여 평생교육보다는 母의 뱃속에서 육체가 생성되어갈 때, 그리고 정신적인 무엇이 생성되어지는 열달 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 모두 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여 受胎하는 그 하루밤이 더

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문헌들에서도 受胎를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란 책에서는 인간의 총체적 의식을 1에서 1000까지 분류했는데 1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이고 1000은 깨달은 사람의 수준이다. 200의 수준이 삶에 대한 긍정성과 적극성을 가지는 수준이고 175가 자존심의 수준으로 미국 해군장교 정도에 해당되는데 인류의 85%정도가 200이하의 수준이다. 평생동안 의식의 성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개인들의 운동역학 시험이나 역사적인 분석에 의한 수치계산을 해 보면, 사람들은 평생동안 평균 5점 정도의 의식진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⁰⁾라고 하여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運氣體質·總論》을 보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냉해가 극심할 때 임신을 하면 心臟衰弱, 心臟瓣膜症 등의 心房患者가 발생하거나 腎不全症 등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¹¹⁾고 하여 육체적인 것도 受胎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張介賓의 《婦人規》에서는 “自然의 氣가 충만하면 인간의 마음도 여유롭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性生活을 하고 妊娠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長壽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自然의 氣가 萎縮되면 인간의 마음도 축소되는데 이러한 때에 性生活을 하여 妊娠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夭折하는 경우가 많다. 돌이켜 보건대 인간은

8) 陳自明 : 婦人良方大全,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5, p286

9) 師朱堂完山李氏 : 胎教神記諺解

10) 데이비드 호킨스 : 의식혁명, (주)한문화, 1990, p220

11) 柳泰佑 : 運氣體質總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4, p.66

自然界 안에서 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天地生成에서 기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경우, 어리석은 경우, 현명한 경우, 아둔한 경우 등이 어찌 天地生成에서 天性을 부여받지 않겠는가? 이것이 感應의 가장 원초적인 基本이다. 진실로 훌륭한 후손을 두고자 하면 당연히 이것을 제일 먼저 힘써야 한다.”¹²⁾고 하였다. 육체적인 면, 심리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모두 앞에서 보았듯이 受胎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남녀의 육체적 건강

많은 고전들에서 父와 母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父와 母가 모두 질병이 없고 최상의 조건이 되었을 때 合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夫婦의 몸이 건강해야만 자식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黃帝內經·骨空論》에서는 “督脈에 病이 있으면 不妊이 된다. 註: 督脈은 衝, 任脈과 같으니 모두 胞間에서 시작하는 까닭에 不妊이 된다.”¹³⁾고 했으며 《婦人良方·求男論》에서는 “자식을 가지려고 하면은 마땅히 먼저 부부의 勞傷痼疾을 살펴서 方에 의지해 조치하여 내외가 화평하게 해야한다.”¹⁴⁾했으며, 《千金方·求子論》에서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것은 夫妻가 모두 五勞七傷과 虛羸百病이 있는 까닭이다.”¹⁵⁾라고 하여 모두 부모에게 질

병이 있으면 不妊이 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건강에 있어 男精女血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受胎시 남녀건강의 원칙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證治準繩 求子論》에서는 “上工의 의사는 無子の 원인을 남자는 精에 있다고 말하고 여자에게는 血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¹⁶⁾하였고, 《廣嗣紀要·寡慾篇》에서는 “男精女血인데 이루기는 어려워도 敗하기는 쉽다. 이 精과 血은 易敗之陰인데 끝없는 욕심을 쫓아간다면 敗하고 또 敗할 것이다.”¹⁷⁾라고 했으며, 《廣嗣紀要·配合篇》에서는 “男精女血인데 서로 혼합하여 胎를 이뤄 자식의 모양이 부모를 닮으니 그 원인은 스스로에 있다.”¹⁸⁾라고 했다. 그리고 張介賓의 《婦人規》에서는 “妊娠에 관련한 질병은 남성의 경우 精에, 여성의 경우 血에 기본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부족함에 기인한다.”라고 해서 모두 男精女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男精女血이라 무엇을 말하는가? 《廣嗣紀要·寡慾篇》에서는 “일찍 여자가 가까이 하여 一宿에 여러 번을 행한 남자는 처음에는 精을, 두 번째는 清水를, 그 후엔 血을 敗하는 것인데 이 血에 이르면 심한 것이다. 여자의 血에 7損이 있다고 말하는데 위로는 乳汁이요 아래로는 月經, 교합시 나오는 浸淫之水, 그리고 崩漏와 帶下인데 이것이 모두 身中の 血이다. 모두 生育에 도움이 많은 것인데 어찌 敗하고 또 敗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求子之道이니 남자는 마땅히 그 精 유익하게 하여야하고 여자는 그 血을 보해야 하는

12) 張介賓著 李泰均編 : 婦人規,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226

13) 楊維傑 : 黃帝內經案問, 서울, 일증사, 1991, p.443

14) 陳自明 : 前揭書, p.287

15) 孫思邈 : 千金翼方校釋,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8, p.82

16) 王肯堂 : 女科證治準繩, 서울, 芸文印書館, 1975, p.309~310

17) 陳夢雷 : 前揭書, p.94

18) 上揭書, p.94

것이니 절제된 예로써 교합지시에 임해야 할 것이다.”¹⁹⁾라 하여 精과 血이 생육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남자는 교합시 精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고 여자의 血은 乳汁, 浸淫之水, 崩漏, 그리고 帶下의 형태로 몸에 존재하는데 모두 胎兒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濟生方·無子論》에서는 “부인은 氣가 보다 盛하면 無子が 되는 바 抑氣散이 마땅하다.”라고 했고, 《證治要訣·婦人以血爲主》에서는 “부인이 일생에 있어서 不破腹而虛者는 이미 不破腹인데 어찌하여 虛라고 하는가. 대저 부인은 血을 위주로 하는데 血이 衰하고 氣가 旺하면 無子이니 血虛한 소치로 胎兒를 올바르게 기를 수 없느니라.”라고 하여 血虛가 無子の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 精과 血이 구사에 중요한 이유는 포를 이루는 데 있다. 《格致餘論·論種子服秦桂丸之非》를 보면 “無子の 원인은 부인에게 많다… 陽精은 베풀고 陰血을 그것을 攝하는데 精은 子를 이루고 血은 그 胞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胎孕이 형성된다. 요즘 부인이 無子인 것은 대개 그 원인이 血이 적어서 攝精을 못하는데 있다. …… 그리하여 자식을 얻을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陰血을 調補하여 흠이 없게 하여 그것이 有餘해야 受胎를 할 수 있다.”²⁰⁾라고 했고, 《婦人秘科·種子章》에는 “生育에는 반드시 陽道가 強健하여 衰하지 않아야 하고 陰癸가 그 候에 應하여 연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음양이 서로 暢하고 精血이 合凝되어 胎元이 쉽게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陽이 衰하여 아래로 陰과 應하지 못

하고 陰이 虧하여 위로 陽을 따르지 못하면 陰陽이 乖離하게 되는데 이것이 無子の 원인이다.”²¹⁾라고 하여 精과 血이 胞를 이루고 胎元을 형성하여 胎孕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精과 血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사실상 男女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건강상태는 血의 상태로 대별되는 것이고 남자의 精으로써 건강이 확인 될 수 있는 것이다. 男精女血이란 말은 受胎시 男과 女의 총체적 건강상태가 최상의 조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다. 女血이 男精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데 女血은 月經으로써 표현이 된다. 月經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문헌을 몇가지 살펴보자.

《婦人良方·產補論》 “병을 치료하는데는 먼저 그 主하는 바를 논해야 하는데 남자는 그 氣를 조절해야 하고 여자는 그 血을 조절해야 한다. 氣血이란 것은 人之神이다. 그러므로 부인은 血으로써 근본으로 삼아 삼가 調護한다면 氣와 血이 잘 행하여 그 神이 自淸하고 月經이 시기에 맞게 나오므로 血凝하여 孕胎할 것이다.”

《婦人秘科·種子章》 “여자가 無子인 것은 그 원인이 대개 月候가 고르지 않은데 있으니 藥餌로써 보조하여 더욱 늘리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經候가 고르지 않았을 때 합하면 無用之地에서 힘을 쓰는 것이니 이것이 調經이 女의 種子之法에서 긴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²²⁾

《東醫寶鑑》 “사람이 사는 길이 子息을 낳는 데 시작되고 子息을 낳는 일은 먼저 經度가 順調로와야 하는 데 每樣 婦人의 無刺한 것을 보면 그의 經度가 或은

19) 上揭書, p.94

20) 朱震亨: 格致餘論, 北京,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9

21) 陳夢雷: 前揭書, p.98

22) 上揭書, p.99

먼저 하고 或은 뒤에 하며 或은 많고 或은 적으며 或은 장차 行하려 할 때 痛이 있고 或은 行한 뒤에 痛이 있으며 或은 紫色이 되고 或은 검고 或은 炎하며 或은 엉겨서 고르지 않으면 血氣가 正常에 어긋나므로 孕胎하지 못한다.”

《婦人規》 “여성에게서는 血이 중요한데 血은 精과 결합하여 妊娠을 가능케 한다. 여성의 病을 관찰하고자 하면 月經을 관찰하여야 하고, 病을 治療하고자 하면 陰分을 調理하면 된다. 月經은 血이고 血은 곧 陰이다. 陰은 月에 상응하므로 매달 月經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月經이다.”²³⁾ 모두 月經이 정상적이어야 孕胎가 순조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月經은 여자의 몸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月經의 시기나 양, 그리고 색깔 등이 모두 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月經이 문제가 있으면 아직 受胎를 위한 충분한 몸상태가 안 된 것이므로 月經이 바르게 될 때까지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婦人良方·無子論》에서 말하는 다음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현명한 부부라면 受胎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과로 氣와 血이 손상된 때, 月經量이 작거나 폐지된 때, 崩漏와 帶下가 있을 때, 오른쪽 尺脈이 浮하여 陽氣가 끊어진 때, 尺脈이 微溢할 때, 少陰脈이 浮緊할 때, 尺脈과 寸脈이 모두 미약할 때 등이다. 또한 섭생을 못하거나 음식이 적절한 경우와 風冷으로 子臟이 結한 경우에도 역시 자식이 없다.”²⁴⁾라고 하여 남자는 평소 精을 잘 조절해야 하고 여자는 血을 잘 조절해서 月經이 순조로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야만 그들 사이에서 난

아이가 건강하고 영민할 것이다. 受胎를 위한 건강관리라고 해서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男과 女 양쪽이 모두 최상의 컨디션에서 交合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렇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끼리의 부부관계도 좋을 것이요, 그들의 튼튼한 육체를 바탕으로 한 정신은 여유롭고 편안할 것이다.

3. 심리적 정서적 안정

《廣嗣紀要·擇配篇》을 보면 “精神이 純實해야 그 花가 뛰어나게 된다.”²⁵⁾라고 해서 受胎시 부모의 精神的인 상태가 자식의 우수함과 열등함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지만 몇몇 문헌들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면 다른 고전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표현 방법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孔子의 경우는 그의 父親 叔良諤이 尼邱山에서 훌륭한 아이를 낳게 해 달라는 기도를 百日 동안이나 드린 後에 受精하여 그를 受胎시켰다.²⁶⁾²⁷⁾ 이것은 受胎전에 精氣를 한 곳에 모아 精血을 맑게 한 후 修身하여 受胎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된 것이다. 설총의 경우는 新羅時代 유명한 元曉大師가 出家하여 修道하였던 중에 요석공주를 만나 一觸 卽發로 그를 낳은 것이다. 요석공주는 妊娠 時에 《觀音經》, 《승만경》, 《金剛經》을 외웠는데 그 理由는 아들을 구하는 마음에서였으며, 그는 “平生 소원이 天下에 으뜸가는

25) 上揭書, p.94

26) 李鐘切: 永遺한 人間象, 서울, 新丘文化社, 1968, p.13

27) 申泰英: 進明類纂, 충남, 충남서관, 李朝古書, p.6

23) 張介賓: 前揭書, p.243

24) 陳自明: 前揭書, p.287~288

男子와 배필을 지어서 삼감마마 다음가는 아들을 낳아 나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元曉大師에게 애원하였다.²⁸⁾ 이처럼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의 기원을 했으며 精氣를 맑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結果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中國 文王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 太任이란 분이 妊娠時에 눈으로 나쁜 색을 보지 않고 귀로 淫亂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입으로 방자한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세상에 나와 聖君이 된 것이다.²⁹⁾ 과연 太任이란 어머니의 努力의 代價이다. 粟谷의 경우도 그의 母親 申師任堂이 妊娠時 特別히 글을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했으며 胎夢으로 아이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³⁰⁾ 《小學》에 옛부터 부인이 아이를 배면 잠자리도 바로 눕고, 가에는 앉지 말고, 더러운 자리에 앉지 말며, 눈으로 邪色을 보지 말며,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고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올바른 일만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³¹⁾³²⁾ 이러한 것들이 모두 受胎시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면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가? 다음의 두가지 고전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廣嗣紀要·寡慾篇》“남자는 清心寡慾을 귀히 여겨야 그 精을 기를 수 있고 여자는 平心定意 하여야 그 血을 기를 수 있다. 이것이 求子之道이다. 대개 남자의

形이 樂하면 氣는 반드시 잘 것이요 志가 樂하면 神은 반드시 흩어질 것이다. 만약 安調을 알지 못한다면 神은 쉽게 소산될 것이며 形을 온전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가득 찬 것은 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精은 항상 부족하여 넘치는데 이르지 못하고 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남자가 清心寡慾을 귀히 여겨 精을 길러야 하는 이유이다. 여자의 性は 도량이 좁고 급하여 難容하고 여자의 情은 媚悅하여 쉽게 감동한다. 難容한즉 多怒하여 氣逆하고 易感한즉 多交하여 점점 枯하게 되니 氣逆不行하고 血少不榮하즉 月事는 때에 따라 나오지 못한다.”³³⁾

《婦人秘科·種子章》“종자를 위해서 여자는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氣를 바르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대개 여자는 몸으로써 사람을 섬기고 그 性は 多躁하고 色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性は 多忌하니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憂患怨怒하니라. 憂하면 氣는 結하고, 思하면 氣는 울결되고 怨한즉 氣는 거칠게 되고 怒한즉 氣는 위로 올라가니 血은 氣를 따라 행하니 기가 逆하면 혈 또한 逆하게 되니 이것이 平心正氣가 여자의 제일 긴요한 이유인 것이다.”³⁴⁾

《廣嗣紀要》와 《婦人秘科》모두에서 남자는 清心寡慾을 여자는 平心定意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전에 나온 대로 여자의 性이 남자보다 難容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여자는 열달 간의 임신기간동안 胎兒를 길러야 함으로 더욱 마음조절이 중요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受胎시의 심리적

28) 李光洙 : 元曉大師, 서울, 경향신문사, 단기 4289

29) 金駿換 : 小學原本集註 內篇, 서울, 永一印刷所, 단기4289, p.2

30) 李殷相 : 師任堂과 栗谷, 서울, 성문각, 1973, pp.53,167

31) 金駿換 : 前揭書, p.3

32) 심마태중교육 李東旼 서울 연구사 1973 p.100

33) 陳夢雷 : 前揭書, p.93

34) 上揭書, p.99

안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크나큰 해가 되겠지만 부모 쌍방도 해가 된다. 《廣嗣紀要·協期篇》을 보면 “神力勞倦, 愁悶恐懼, 悲優思怒, 疾病走移, ... 酒醉食飽 등등은 交合의 금기인데 그것을 어기면 사람이 損되고 元氣가 耗散될 것이다.”³⁵⁾라고 해서 심리적 불안이 元氣를 耗散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정이 제대로 되면 《東醫寶鑑》에 나와있는 것같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求嗣의 道는 婦人의 經度가 고른 것을 要求하고 男子의 神이 足할 것을 要求하며 또 感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上策이 되는데 感心이 적으면 망녕되어 交合하지 않으며 氣를 쌓고 精을 모아서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故로 子息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感心이 적으면 神이 完全하여 子息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年壽도 많아지는 법이다.”

4. 천지의 상황

尹東里의 《草窓訣》의 運氣衍論 序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一紀안에 天運之氣가 매번 고르지 못하여 혹은 가물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너무 바람이 불거나 너무 춥거나 한다면 사람의 한 몸은 천지의 지극한 신령을 받은 자로서 어찌 臟腑속에 虛實의 반응이 없을 것인가? 비록 반나절의 찬 기운을 느끼는 것이거나, 털구멍의 작은 중기라도 어떻게 運氣의 이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³⁶⁾라고 하여 천지의 미묘한 변화라 할지라도 一身에 영향을 주게 된다. 受胎당시의 천지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란은 應하여 생성된다. 온도의 차이, 밝기의 차이, 날씨의 차이,

그리고 윤기의 차이 등이 고스란히 受胎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언급이 고전에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사람의 육감으로 쾌적하고 기운이 고른 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은 것 같다. 몇몇 원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千金方·種子法》 “큰바람이나 큰비가 내릴 때,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일식이나 월식일 때는 모두 교접을 하면 안 되느니 그런 날에 교접해서 태어난 아이는 귀머거리거나 사지가 불완전할 것이다.”³⁷⁾

《婦人良方·交會禁忌》 “또한 바람과 비 그리고 안개가 심한 날, 너무 덥거나 추운 날과 번개와 霹靂이 치는 날, 천지가 昏冥한 날, 해와 달이 광명을 잃은 날, 무지개 낀 날, 地動하는 날,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이 그러하다.”³⁸⁾

《廣嗣紀要·協期篇》 “천지가 진동하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뇌전이 일어나고 날씨가 어두운 날, 月煞日破한 날, 大寒大暑한 날,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등이 受胎하는 때와 장소에 대한 금기이니 진실로 지켜서 교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⁹⁾

5. 장소

이상적인 受胎를 위해서 적합한 장소가 있고 피하여야 할 장소가 있다. 張介賓의 《婦人規》에서는 受胎 장소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地理는 子嗣에 관계되어 매우 중요하다. 陰宅이 자손들에게 마땅한 것은 후손이 매우 많은 데서 알 수 있다. 陽宅이 子嗣에 마땅한 것은 生氣天乙인게 가장吉하다. 그러

35) 上揭書, p.97

36) 尹東理 : 草窓訣,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4, 序文.

37) 孫思邈 : 前揭書, p.83

38) 陳自明 : 前揭書, p.290

39) 陳夢雷 : 前揭書, p.97

나 吉地와 吉人이 期約을 하고서 會同되는 것은 아니다. 德이 있으면 이에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좋은 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인데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먼저 마음 자리가 있는 연후에 陰地가 있다고 하였는데 확실히 이것은 迷信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치는 깊고 뜻이 심오하여 한마디로 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손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⁴⁰⁾ 陰宅과 陽宅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陰宅 즉 묘자리는 당대의 자손에게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아 후대의 자손들에게 중요하며, 陽宅 즉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자식을 갖는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生氣天乙은 풍수적 용어인 듯한데 生氣가 가장 넘쳐나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吉地가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자리에 따라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 受胎에 있어서 장소를 가리는 것에 선행해야 할 조건이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婦人良方·無子論》에서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데는 원인이 세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덤이 있는 곳이나 풍수가 이롭지 아니한 곳이고...”⁴¹⁾라고 하여 無子の 원인중 장소금기를 첫 번째로 두어 장소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장소금기에 대해서는 고전들에서 대체로 일치된다. 《婦人良方·交會禁忌》에서는 “해와 달과 별빛이 비치는 곳, 사당, 우물, 부엌, 화장실, 무덤가 등의 장소는 가려야 한다.”⁴²⁾라고 말하고 있고, 《廣嗣紀要·協期篇》에서는 “名山大川,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이나 사당, 僧宇道觀, 聖賢의 상 앞, 우물가, 火光이 있는 곳 등을 가려야 한다.”⁴³⁾라고 했고, 《婦人規》에서는 “이 외에도 性生活을 하는 장소로 禁하는 곳이 있는데 마땅히 그 금기를 알아야 한다. 神前이나 사당의 근처, 우물, 부엌, 무덤, 관등이 있는 주변, 그리고 日月火光이 환히 비치거나 또는 陰沈하고 危險한 곳, 神魂이 不安하게 느껴지는 장소 등에서는 반드시 性行爲를 피해야 한다.”⁴⁴⁾라고 말하고 있다. 세 문헌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무덤이나 부엌, 신전, 사당,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 등은 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금기장소로 수궁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火光이 비치는 곳이나 우물가 등은 납득하기가 힘든 점이 있다. 《廣嗣紀要·協期篇》의 名山大川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름난 산이나 큰 강은 풍수적으로 분명히 吉地이다. 吉地임에도 禁하는 것은 사당이나 조상의 위패를 모신 것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러한 장소금기를 어길 경우에 대해서 《婦人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를 삼가지 않으면 夭折하거나 불구가 되고, 뜻밖의 재앙이 끊이질 않게 되거나, 급기야는 不忠不孝한 무리의 자손들이 잇달아 나오게 된다. 그 영향을 염두에 둔다면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⁴⁵⁾

6. 受胎시기

1) 일생에서의 受胎시기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여자는 14세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통하고 太

40) 張介賓 : 前揭書, p.228

41) 陳自明 : 前揭書, p.287

42) 上揭書, p.290

43) 陳夢雷 : 前揭書, p.97

44) 張介賓 : 前揭書, p.228

45) 上揭書, p.228

衝脈이 盛하여 月經이 때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니 자식을 가질 수 있게된다.”⁴⁶⁾라고 하여 여성이 受胎를 할 수 있는 육체적 나이를 14세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부인과적 지식과 일치하는 점인데 月經과 임신능력을 같이 생각하는 것 또한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뛰어넘어 지금이 지식과 부합된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 데 그것은 이러한 생리적 여건과는 별개로 적당한 受胎시기가 따로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婦人良方·求男論》을 보면 “남녀가 교합하는 데는 마땅히 그 해가 중요하다. 남자는 비록 16세에 精이 통하지만 반드시 30세에 아내를 맞이해야 하고 여자는 비록 14세에 天癸가 이르지만 반드시 이십세에 시집가야 한다. 陰陽이 모두 完實한 이후에 交合하여 妊娠하면 胎兒가 잘 자라게 되고 胎兒가 잘 길러져야 아기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여자들은 天癸가 이르기 시작할 때에 이미 남자를 가까이 하여 陰氣가 일찍 누설되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상해하는 것이 되고 아직 충실해지지 않았는데 動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交合하여도 妊娠이 되지 않고, 妊娠이 되었다 해도 胎兒가 잘 자라지 않게 되며, 胎兒가 자랐다고 해도 아기가 痿弱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왕께서 아이가 없는 이유입니다.”⁴⁷⁾라고 하여 여자는 14세, 남자는 16세에 생리적, 육체적 受胎능력이 생기지만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여 그것이 完實한 시기인 여자는 20세, 남자는 30세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의 부인과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포함한 것이라 생각된다.

2) 旺相日

受胎 길일을 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기학적인 접근이다. 한의학의 바이블격인 黃帝內經에도 運氣에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대에 와서는 尹東里선생의 《草窓訣》에서 運氣로 구체적 처방까지 제시하며 천지의 운기변화가 인간의 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다. 사주에서 길일을 택하는데 運氣가 이용되는데 受胎에서 길일을 잡는데도 사주에서의 택길일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廣嗣紀要·協期篇》을 보면 四旺日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주학에서의 旺相休囚死의 개념과 상통한다. “求子之法은 부인의 經水가 끝나는 것을 잘 살피는데 있는데 四旺日 후에 자궁이 바야흐로 열리니 이때 交合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봄에는 甲乙寅卯日이, 여름에는 丙丁巳午日이, 가을에는 庚辛辛酉日이, 겨울에는 壬癸亥子日이, 四季에는 戊己辰戌丑未日이 四旺日이다. 經水가 끝나는 날이 이와같이 않으면 四旺日을 기다려서 교합해야 한다.”⁴⁸⁾ 봄에는 木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므로 같은 木의 기운을 가진 木日이 기운이 가장 旺한 날이 된다. 天干地支에서 甲乙寅卯가 木에 해당되므로 旺日이 되는 것이다. 《婦人良方·推支干旺相日法》에도 四旺日 개념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봄: 甲乙, 여름: 丙丁, 가을: 庚辛, 겨울: 壬癸, 봄: 壬卯, 여름: 巳午, 가을: 辛酉, 겨울: 亥子”⁴⁹⁾라고 하여 이 四旺日이 月經주기중의 受胎가능기간

46) 楊維傑 : 前掲書, p5

47) 陳自明 : 前掲書, p287

48) 陳夢雷 : 前掲書, p.96

49) 陳自明 : 前掲書, p.291

과 일치하면 아주 좋은 受胎吉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四旺日을 모두 택하는 것은 아니다. 《婦人良方·交會禁忌》에 보면 “무릇 자식을 얻으려면 吉日을 택해야 한다. 마땅히 丙丁日이나 弦望日, 그믐, 초하루를 피해야 한다.”⁵⁰⁾ 라고 하여 丙丁日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 《婦人良方》 이외의 몇몇 고전에서 忌丙丁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름의 旺相日중 丙丁일을 제외하면 巳午日만이 남게 된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受胎吉日이 절반으로 줄게 되는 셈인데 이것으로 보아 受胎에서 안 좋은 계절은 여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정한 날

알맞은 受胎시기중에서 특정한 어느 날은 좋고 특정한 어떤 날은 나쁘고 하는 것이 있다. 몇몇 문헌들에서 보이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특정한 날이 있다. 그 책을 쓴 저자나 그 시대의 인물들은 그 날의 좋고 나쁜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나 현대의 시각에선 알 길이 없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았으니 사주학과 운기학 등 여러 지식을 이용해서 밝혀보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의 문헌을 보자.

《婦人良方·推每月宿日》

- 정월 - 1, 6, 9, 10, 11, 12, 14, 21, 24, 29일
 2월 - 4, 7, 8, 9, 10, 12, 14, 19, 22, 27일
 3월 - 1, 6, 7, 8, 10, 17, 20, 25일
 4월 - 3, 4, 5, 6, 8, 10, 15, 18, 22, 28일
 5월 - 1, 2, 3, 4, 5, 6, 10, 12, 13,

- 15, 16, 22, 25, 28, 29, 30일
 6월 - 1, 3, 10, 13, 18, 23, 26, 27, 28, 29일
 7월 - 1, 11, 16, 21, 24, 25, 26, 27, 29일
 8월 - 5, 8, 13, 18, 21, 22, 23, 24, 25, 26일
 9월 - 3, 6, 11, 16, 19, 20, 21, 22, 24일
 10월 - 1, 4, 9, 14, 17, 18, 19, 20, 22, 29일
 11월 - 1, 6, 11, 14, 15, 16, 17, 19, 26, 29일
 12월 - 4, 9, 12, 13, 14, 15, 17, 24, 27일
 봄에는 甲寅乙卯와, 여름에는 丙午丁巳와, 가을에는 庚申辛酉, 겨울에는 壬子癸亥와 합하는데 위의 件月 宿日과 합하면은 더욱 좋다.⁵¹⁾

《婦人良方》에 나와있는 宿日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밑의 旺相日은 다른 문헌과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廣嗣紀要·協期篇》을 보면 “神佛이 태어난 날, 庚申甲子日, 本命之日, 三元八節, 5월 5일... 등은 모두 受胎時地 禁忌이니 진실로 交會를 삼가야 한다.”⁵²⁾라고 나오는데 이것 역시 그 근거가 나와있지 않다. 60甲子日중 庚申日과 甲子日이 특별히 나쁘다고 하는데 알수 없는 일이며 5월 5일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協期篇》을 계속 보면 “여러 금기들을 앞에서 살펴봤는데 다시 5월 18일이 있으니 이것은 天地牝年之日이므로 음양이 교합하는 시기중 세상사람들이 마땅히 피해야 하는 날이니 진실로 行房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면 심하면 奪命하고 가볍게는

50) 上揭書, p.290

51) 陳自明 : 前揭書, p.291~292

52) 陳夢雷 : 前揭書, p.97

수명이 감소된다. 만약 이 시기에 受胎를 하면 子母가 모두 보전하기 어렵다.”⁵³⁾라고 해서 5월 18일은 天地의 牝年之日이므로 절대로 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심하게는 奪命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5월 18일이 어찌서 그러한 날인지 근거가 나와있지 않고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는 禁忌日이니 그 타당성을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4) 生理後 6日前을 말함

月經주기중에서 受胎 가임기간을 月經 전 12일에서 19일로 본다. 즉 배란기를 말하는데 精子의 생존시간과 卵자의 생존시간을 감안해서 정한 가임기일이다. 《婦人秘科·濟陰通元賦》의 “가을 이슬이 꽃가지에 점점이 떨어지니 옥랍이 가히 맺을 수 있다.”⁵⁴⁾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卵자와 精子가 만나서 受精卵이 형성되는 순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놀랄만하다. 그러나 月經주기중 受胎가임기간에서는 현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나와 있다. 月經이 끝나고 6일 이전을 受胎가임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婦人良方·男女受胎時日法》을 보면 “남녀가 受胎하는데 있어서 月經이 끝난 뒤 1, 3, 5일에 射精하면 남자인데 더욱이 宿月에 宿日을 만나면 귀하다. 月經이 끝나고 2, 4, 6일에 射精하면 여자를 受胎하게 된다. 月經후 6일이 지나면 受胎할 수 없다. 또한 旺相日을 만나면 더욱 길하다. 夜半에 교합하여 낳은 자식은 현명하고 귀하며 장수하고 그 외 시간에 입방하는 것은 모두 흉하다.”⁵⁵⁾라고 하면서 6일전을 受胎가능일로 보고 있다. 또한 《千金

方·種子法》에서도 “오직 月經이 끝나고 1일째는 남자, 이틀째는 여자, 삼일째는 남자이니 이외에는 모두 임신할 수 없다.”⁵⁶⁾라고 하여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萬病回春》에서는 “부인의 經水가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兩日半에 끝나는 것과 삼일에 끝나는 것은 여인이 血旺氣盛한 것이다. 6,7일에 끝나는 것도 있으니 정해진 바는 없다. 단지 경수의 안색이 어떠한가를 볼 따름이다. 면으로 호구를 묻혀서 그것을 보면 된다. 金色을 띠는 것은 受胎하기에 좋은 시기이고 鮮紅色은 아직 月經이 끝나지 않아 不及한 것이다. 淡淺者는 太過한 것으로 시기가 지난 것이다. 敗血이 去하고 新血이 生하여 金色을 띠는 것이니 좋은 시기이 것이다. 이 시기에 交合하면은 受胎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이 시기가 오기 전에 交合하면은 이루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經水가 아직 盛하고 자궁은 塞되어 受精之處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가 지나서 交會하면은 자궁이 이미 닫혀 精이 문이 없는 곳을 진입하는 모양이 되므로 어찌 성사가 되겠는가?”⁵⁷⁾라고 하여 날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月經후 新血이 생기기 시작하여 金色을 띠는 시점이 앞에서 말한 6일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受胎를 보는 관점이 재미있는데 月經이 시작되면서 자궁이 열리는 것으로 본다. 자궁이 月經중에는 閉혈이 거하는 중이므로 受胎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敗血이 어느 정도 去하고 新血이 생기기 시작하여 金色을 띠는 때는 자궁이 열린 데다가 新血이 生하는 까닭

53) 上揭書, p.97~98

54) 上揭書, p.98

55) 陳自明: 前揭書, p.291

56) 孫思邈: 前揭書, p.83

57) 龔延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4, p.93~95

에 受胎의 적기인 것이다. 이 시기를 지나 淡淺色이 나오는 것은 月經이 아주 끝났기 때문이고 月經이 완전히 끝나면 자궁이 닫히게 되어 受胎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廣嗣紀要·協期篇》에도 “중자가에서 이르기를, ‘三十時辰 즉 兩日半을 月經週期 이십팔, 구일중에서 당신은 계산해야 하오. 붉은 꽃이 떨어져 땅에 가득하니 좋은 시기이다. 金水가 과하는 시기는 공연히 요란만 하니 요란한 시기에는 낭비하지 말지어다. 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꽃을 쳐다본다. 단지 꽃이 열려 있을 때 자식을 맺을 수 있으니 어찌 붉은 계수나무가 다발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것은 부인의 月經이 끝나고 金水가 才生하는 때에 자궁이 바로 열리니 이에 受精해서 結胎하는구나! 妙合太和之時로다! 이 좋은 시기를 놓치면 자궁이 닫쳐 受胎를 못하는 도다. 그리하여 男女之分에는 각기 妙함이 존재하는구나.’ 이와 같이 月候가 바야흐로 끝나고 1, 3, 5일에 交會하면 남자를 受胎하고, 2, 4, 6일에 交會하면 여자를 이루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受胎할 수가 없다.”⁵⁸⁾라고 하여 같은 의견을 보인다. 金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月經이 끝나고 金水가 재생되는데 재생되기 시작하면서 자궁이 열리니 受胎할 수 있게 되고 그 金水の 才生이 너무 과하면 시기를 놓쳐 자궁이 닫히게 되어 受胎할 수 없게 된다. 金水를 자궁내막의 증식으로 본다면 月經후 6일은 현대의 부인과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증식이 절정기에 이르는 시기는 月經시작후 14일인데 이때가 가장 이상적인 착상이 된다. 月經이 짧게

는 3일 길게는 7일 정도인데 평균 5일로 보면 月經시작후 11일 이전이 受胎가임기간이라고 고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月經후 6일의 근거는 무엇인가? 受胎는 착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착상은 자궁내막의 증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月經시작후 14일정도 걸리는 증식을 고전대로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11일 안에 이루어 졌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月經이 시작되어 敗血이 나오게 되면 자궁이 열리는 것이고 자궁이 끝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6일쯤 자궁이 닫히게 되어 受胎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가? . 月經과 동시에 자궁이 열리게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닫혀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발상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전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요즘 여자들과 고전이 쓰여졌던 시대 여자들과 생리주기나 배란시기가 다르다면 月經後 6일이 사실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궁내막의 증식이 현대보다 3일 이상이 빠르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힘들다. 그러나 내막의 증식이 여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당시 여자들의 건강과 현대 여성의 건강을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밝힐 수는 있을 것이다. 여성의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사일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은 가사일의 강도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인데 그 노동강도는 노동조건이 되는 가옥의 구조에 따르게 된다. 가옥의 구조의 차이가 자궁의 건강도의

58) 陳夢雷 : 前掲書, p.95

차이와 관계가 있다는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본 논문의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신영훈의 우리한옥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몸이 부실한 사람이 뜨끈한 아랫목에서 작시근하게 지지고 나면 거뜨해진다. 아이 낳은 산모도 아랫목에 자리보전하고 산후 조리하면 거뜨하다.”⁵⁹⁾라고 온들의 온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水升火降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한다. 불이 바닥에 있어 命門火를 도우니 아랫배는 따뜻하게 되고 한지로 된 문과 창으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는 머리를 서늘하게 하니 水升火降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네 여인들은 1년 12달을 이 온들 위에서 생활하니 그네들의 자궁은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싸 항시 생명을 孕胎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한옥에서 생활하는 여인들의 자궁과 아파트에서 사는 부인들의 자궁이 같을 수는 없다. 그 차이가 배란시기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고전의 受胎 가임 날짜와 현대 부인과적 가임 날짜와의 차이가 그러한 자궁의 건강도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5) 배란기

《六科準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부인이 一月經行中에 반드시 一日一時辰間에 慍慍之時가 있어서 氣蒸而熱하고 昏而悶하여 交接慾이 생겨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자궁 내에는 마치 蓮花狀과 같은 것이 月經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자연히 陰中으로 배출되니 內人이 下體를 씻을 때 손으로 만지면 스스로 알 수 있

다.”⁶⁰⁾라고 하여 배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배란기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서양 의학에서도 근래의 일이다. 그것에 반해 이 동양의 고전에 나와 있는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蓮花狀이라는 표현은 배란기의 卵巢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해부학적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受胎시기를 이 책에서는 따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배란기 때 성욕이 動하니 그 때가 곧 受胎적기이니 따로 이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란기가 月經주기 중 어느 때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經行中 一日一時辰이 있다는 표현에서 經行이 月經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란기가 月經중에 있다는 말이 된다. 經行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景岳全書》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月經이 끝나고 10일, 15일, 20일이 지난 후에 受胎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⁶¹⁾ 受胎가임기를 月經후 10일에서 20일 사이로 보는 것인데 현대의 부인과적 지식과 가장 부합되는 문장이다. 《六科準繩》과 《景岳全書》이외의 문헌에서는 배란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란기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자체가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6) 年中 時間에 따라

일년 중 受胎 適期와 不適期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婦人良方·交會禁忌》를 보자. “무릇 자식을 얻으려면 吉日을 택해야 한다. 마땅히 丙丁一이나 弦望日, 그믐,

60) 王肯堂 : 六科準繩,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 68年, p.273~275

61) 張介賓 : 景岳全書,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 69年, p.686~687

59) 신영훈 : 우리한옥, 서울, 현암사, 2000, p.29

초하루를 피해야 한다. 만약 이런 곳에서 교합을 한다면 受胎하는데 손해가 많을 것이요 자식을 낳아도 잔병 치레나 요절할 것이요, 우매하고 불효를 할 것이다.”⁶²⁾라고 하여 그름이나 초하루에는 受胎 적기가 아니라고 나와있다. 《廣嗣紀要·協期篇》에 “부부가 교합하는 때에는 三虛 四忌가 있으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三虛라는 것은 冬至에 陽이 生하여 眞火가 正伏하고, 夏至에는 陰이 生하여 眞水가 오히려 微微하니 이것이 일년 중 虛한 날이다. 上弦前과 下弦後에는 月廓이 공허하니 이것이 月중 虛한 날이다. 日月이 비치지 않아 天地가 어두울 때는 一日중 虛이다. 이 三虛가 겹치는 날에는 반드시 부부간의 교합을 삼가야 한다. 四忌라는 것은 이러하다. 一忌는 本命正衝으로 甲子庚申日중 그름과 초하루일 때이다. 二忌는 아주 춥거나 더운 날과 크게 춥거나 포식한 날이다. 三忌는 日月星辰이 비치는 곳이나, 절이나 사당, 조상을 모신 곳, 우물과 묘지가 있는 곳 등이다. 四忌는 놀라거나 어지러운 일을 당했을 때, 성나거나 꾸지람을 들었을 때, 싸움 등의 충동이 일어났을 때 등이다. 이 三虛四忌를 범했을 때는 無子が 아니더라도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⁶³⁾하고 하여 三虛四忌라는 용어가 나온다. 일년 중에 虛한 날이 있는데 모두 음양의 편차가 심한 날로 음이나 양 중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어느 한쪽이 虛하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虛다. 일년으로 보면 낮이 가장 긴 하지와 밤이 가장 큰 동지가 가장 큰 편차를 가지는 날이 되는 것이다. 한달로 본다면 그름에서 반달이 되기 전까지의 기

간과 보름이 지나고 반달에서 다시 그름으로 되는 기간이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 하루로 보면 낮이든 밤이든 간에 달과 해가 가려져 비치지 않는 시간이 日中 虛가 되는 것이다. 四忌라는 것은 파자를 해보며 자기 己자 밑에 마음 心자가 있어서 나의 마음이 動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이 모두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상황들로 마땅히 忌해야하는 날인 것이다.

7) 婦人規

張景岳의 《婦人規》에는 다른 고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문장이 나온다. 受胎시기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음미해 볼 만한 글이다. “夫婦가 性生活을 하는 시간에 관하여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날·좋은 시간 즉 天德·月德과 干·支가 서로 旺盛할 때를 택하는 것이 마땅하고 丙丁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夫婦간의 性生活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시간을 택한 후에 실행할 수 있겠는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믿고 따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날씨가 晴明하고, 비 갠 뒤의 晴涼함이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여 상쾌하면, 感情과 생각이 맑고 편안하고, 精神狀態가 여유가 있게 된다.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굳이 택일을 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자식을 얻게 되면 잔병이 없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현명하게 된다. 胎元이 타고나는 것은 여기에 기초해야 한다.”⁶⁴⁾라고 하여 여러 길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六感으로 상쾌하고 기분좋은 날을 가

62) 陳自明 : 前掲書, p.290

63) 陳夢雷 : 前掲書, p.97

64) 張介賓 : 前掲書, p.225

릴 수 있으니 그날이 바로吉日이라고 말하고 있다. 운기나 풍수적인 것이 중요시 되었던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人事에 따른 受胎금지

날씨나 장소 등의 受胎금지 외에 인사에 따른 受胎금지가 있다. 특정한 상황이나 일이 있을 때에 교합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심마태중교육》에서는 “초상집에 출입한 수 피할 것, 소송관계에 있는 사람은 완결된 후에 할 것, 금전관계로 정신적 고민이 있을 때를 피할 것, 신체상 피로울 때는 피할 것, 남녀간 교통에 놀란 일이 있으면 약 2일간 피할 것, 남자가 다른 여인과 동침했으면 8일간 피할 것, 분하거나 흥분 시 안정된 다음에 할 것, 술에 취했을 때는 피할 것, 受胎시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말 것(아이의 수명이 단축됨)”⁶⁵⁾이라 하여 受胎를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후에 교합을 하라는 말이 된다. 술에 취한 다음에 합방을 금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婦人規》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飲食에는 臟氣마다 좋은 것이 있으나 이것에 지나치게 구애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술만은 많이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胎種先生의 氣는 지극히 깨끗하고 충실해야 하는데 술의 성질은 淫熱하여 性情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精도 또한 어지럽힌다. 精이 술로 인하여 어지럽혀지면 濕熱이 절반이고, 진짜 精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精이 충실하지 못하면 胎元이 固

密하지 못하고, 精에 濕熱이 많으면 후일 痘疹, 驚風, 脾敗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모두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기를 택하여 妊娠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적게 마시는 것보다 못하며,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것 역시 胎元을 이루는 하나의 큰 기전이다. 자손을 얻고자 하면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⁶⁶⁾ 마땅히 새겨들어 실천할 만한 것이다. 《廣嗣紀要·協期篇》에서는 교합 시 지켜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養生經에 말하기를, 交合之時에 여자에게 五傷之候가 있다. 첫째는 陰戶가 닫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자입하면 안 되는데 강제로 자입하면 肺를 傷한다. 두 번째는 여자가 이미 動欲男하거나 남자가 따르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교합을 시작하면은 傷心하니 傷心하면 經水가 고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少陰이 老陽을 만나면 玉莖이 단단하지 않고 經奉하여 쉽게 연해지니 비록 자입해도 동요하지 않으니 여자는 그 눈을 상해 맹인에 이를 것이다. 넷째는 여자의 經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자가 강제로 합하면은 그 腎을 傷한다. 다섯째는 남자가 술을 마셔 많이 취했을 때 여자와 교합하면 經物이 단단해지고 오래 자입되어 그치지 않으니 女情이 이에 과하고 양은 쉬지 못하니 傷腹하게 된다. 五傷之候가 이러하니 자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交合之時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⁶⁷⁾ 요즘의 성풍토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몸과 마음이 適期가 되

65) 李東政 : 심마태중교육, 서울, 연구사, 1973, p.100

66) 張介賓 : 前掲書, p.241

67) 陳夢雷 : 前掲書, p.96

있을 때 교합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일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임신일 것인데 이 임신기간에도 교합을 금해야 한다고 여러 문헌에 보인다. 師朱堂 李氏는 “짐승도 암컷이 새끼를 배면 수컷을 멀리하여 새끼를 보호하는데 하물며 사람일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⁶⁸⁾고 하였으며, 《東醫寶鑑》에는 “일단 受胎된 뒤에는 男女의 교합은 禁해야 한다.”⁶⁹⁾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규태는 “受胎 후에는 禁慾한다. 특히 產月에 行淫하면 아이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⁷⁰⁾고 하였고, 李東政도 “妊娠 中의 엄격한 性生活의 禁止는 실제로 불가능하나 根本은 節度를 지키는데 있다.”⁷¹⁾하여 節度 있는 性生活를 勸誘하고 있다.

8. 受胎시의 男女의 협조

受胎시 남녀의 협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위의 여러 상황이 잘 갖춰져도 당사자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受胎는 전혀 가능하지 않게 된다. 《婦人良方·無子論》에서는 “無子の 原因이 세가지가 있는데 …… 둘째는 부부의 年과 命이 서로 상극을 이루는 것이고…”⁷²⁾라고 하여 부부의 선천적인 조화를 말하고 있다. 《千金方·求子論》에서도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夫妻의 本命, 五行相生, 德合등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본명이 子休廢死墓中에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 本名 五行相剋이 刑殺衝破와 더불어 子休廢死墓中에 있는 자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⁷³⁾라고 해서 부부간의 보이지 않는 조화를 말하고 있다. 《婦人秘科·濟陰通元賦》에서는 “경후가 조화로우면 男녀가 합할 수 있다. 삼일지기동안 출입하지 않고 일시의 즐거움을 다해야 한다.”⁷⁴⁾고 하여 부부간의 일치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胎教新記》에서도 “夫婦되거던 서로 恭敬함으로 상대하고 放蕩하거나 凶惡함으로 相接하지 말지니 … 아내의 방이 아니면 처하지 못하며 몸에 病이 있으면 아내 방에 들지 말며, 陰陽이 고르지 못하고 天氣가 예사롭지 않거든 아내 방에 들지 말고 虛慾이 마음에 일지 않게 하고 邪氣가 몸에 들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조심하여 子女를 낳는 것이 父親으로서 道理이니라.”⁷⁵⁾하였고 김태동은 “妊娠中에는 물론 出產 前後의 性交에서도 父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⁷⁶⁾고 하였으며 주장일도 “이러한 禁慾 生活은 父와 母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⁷⁷⁾이라고 하여 특히 性交에 있어서 父와 母의 協力을 당부하였다. 受胎에 임해서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

68) 유안진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정민사, 1980, p.16~17
 69) 東醫寶鑑 국역위원회 :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76, p.964
 70) 이규태 : 서민한국사, 서울, 샘터사, 1976, p.188
 71) 李東政 : 胎中教育, 서울, 흐름사, 1982, p.59
 72) 陳自明 : 前掲書, p.287

73) 孫思邈 : 前掲書, p.82
 74) 陳夢雷 : 前掲書, p.98
 75) 師朱堂 完山李氏 : 前掲書, 第一章 只言教學; 夫告諸父母 聽諸媒氏 命諸使者 六體備而後 爲夫 婦曰以恭敬相接 無或以愛狎相加 室宇之下 牀席之上 猶有未出口之言焉 非內寢不敢入處 身有疾病 不敢入寢 身有麻布 不敢入寢 陰陽不調 天氣失常 不敢宴息 使虛慾 不萌 干心 邪氣, 不設干體 以生其子者 父之道也 時曰 相在爾室 尙不愧干 屋漏 無曰不顯 莫子云 觀 神之格思 不可度思
 76) 김태동 : 모성보건의 실제, 서울, 가족계획연구원, 1937, p.23
 77) 주장일 : 아동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0, p.73

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성교 시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廣嗣紀要·協期篇》에 자세히 나와 있다. “남녀가 아직 交合하지 않은 때에 남자에게는 三至가 있고 여자에게는 五至가 있다. 남녀가 서로 情이 動하고 피차 神交한 이후에 행한다면 음양이 화창하고 精血이 凝凝되어 자식이 있게 되는 이치가 있다. 만약 男情이 이미 이르렀는데 女情이 未動하면 精이 早泄되니 孤陽이라고 한다. 女情이 이미 이르렀는데 男情이 未動하면 女興이 過하는데 寡陰이라고 한다. 玉函經에 이르기를 屬陽寡陰은 불중하니 …… 生育할 수 없다고 이른다. 男子에게는 三至가 있는데 陽道가 昂되고 振하는 것은 肝氣가 이른 것이다. 壯大하면서 熱氣가 있는 것은 心氣가 이른 것이다. 堅勁함이 지속되는 것은 腎氣가 이른 것이다. 이 三至가 모두 갖춰져야 如心이 기뻐할 것이다. 만약 萎縮되고 不奉한 것은 肝氣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肝氣가 이르지 않았는데 억지로 合하면은 그 筋을 傷하여 그 精이 흘러 射精을 하지 못하게 된다. 壯盛하나 熱하지 않은 것은 心氣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心氣가 이르지 않았는데 강제로 合하면은 반드시 그 血을 傷하여 그 精이 清冷하고 따뜻하지 않게 된다. 단단하면서 지속되지 않는 것은 腎氣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腎氣가 이르지 않았는데 강제로 合하면은 그 骨을 상하여 그 精이 나오지 않으니 나와도 그 양이 적을 것이다. 이것이 남자가 자식을 구하는데 清心寡慾을 귀히 여김으로써 肝心腎의 氣를 길러야 하는 이유이다………… 이 남자의 三至와 여자의 五至를 기다려서 몸을 통하면은 이것이 바로 陰陽이 交感하는 이치이며 지금

한 미묘함이 있는 것이다.”⁷⁸⁾라고 하여 受胎시 서로 자기 몸을 잘 살펴 臟器의 기운이 모두 충만해 졌을 때 교합할 것이며 상대방은 이러한 것을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T.Verny는 胎兒에게 미치는 肉體的, 精神的 障礙의 최대 원인은 불행한 結婚生活이라고 말한다. 또 스포크 박사의 研究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安定된 관계에 있는 夫婦에 비해 적대시하고 싸움만 하는 夫婦에게는 肉體的 精神的으로 障礙가 있는 아기가 태어날 위험이 약 2.5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태어날 아기가 恐怖心에 사로잡히는 빈약하고 신경질적인 아기가 될 確率이 5배나 된다고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⁷⁹⁾ 繁多進도 “胎兒에 대한 기대나 不安의 感情을 男便과 나누는 妻는 幸福하며 不安이 輕減되고 기대가 커진다. 不安을 이해해 주지 않는 男便을 가진 妊婦는 아기를 갖는 기대보다 자신은 건강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不安과 出産後의 教育에도 여러 가지 不安을 增大시킨다.”⁸⁰⁾고 한다.

Ⅲ. 결론

1. 父와 母의 건강과 受胎時의 컨디션은 子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胎兒는 精과 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精은 父에게서 받고 血은 母에게서 받는다. 父의 精이 약하고 혼탁하면 胎兒에게서의 精도 그러하고 母의 血이 나

78) 陳夢雷：前掲書，p.97

79) T. Verny：胎兒는 알고 있다(The Secret of the unborn child), 주정일 감수, 서울, 샘터사, 1983, p.43

80) 繁多進：父親のやるべきこと則, 동경, サンマーク出版, 1983

쁘면 胎兒의 血도 그러하다. 이때 생성된 先天의 精과 血으로써 後天의 精血과 더불어 평생 건강의 척도가 된다.

2. 受胎당시의 부모의 정신상태나 주위 환경의 부드럽고 강함에 의해서 그 기운이 고스란히 胎兒에게 스며들어 인생전반의 인격의 토대를 이룬다. 즉 受胎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평생의 인격이 좌우된다.
3. 受胎吉日은 운기적으로는 旺相일등 기운이 왕성한 날이고 三虛四忌등 기운이 虛한 날은 나쁜 날이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날은 피해야 하고 육체적 조건이 나쁜 날도 피해야 한다.
4. 受胎의 올바른 방법은 자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부부생활을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잘못된 여러 受胎상식들이 부부의 건강과 인격적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이상적이고 최고의 의료는 생명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다. 전체적이고 총체적 의료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지금의 의료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이끌 것이다. 생명이 첫 시작을 의미하는 受胎는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고전을 통해서 수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한의학 서적에 한정되어 있고 한의학 서적도 모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태가 인생의 첫 시작이고 인생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IV. 참고문헌

1. 대한 산부인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 婦人科學,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1.
2. 金駿煥 : 小學原本集註 內篇, 서울, 永一印刷所, 단기4289.
3. 프리드리크 르브와이에 : 폭력없는 출산, 서울, 하소, 1995.
4. 파드마삼바바 : 티벳死者의 序, 서울, 정신세계사, 2000.
5. 陳夢雷 :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6. 陳自明 : 婦人良方大全,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5.
7. 師朱堂完山李氏 : 胎教神記意譯, 韓戴傑譯, 영인본.
8. 王肯堂 : 女科證治準繩, 서울, 芸文印書館, 1975.
9. 楊維傑 : 黃帝內經素問, 서울, 일중사, 1991.
10. 주진영 : 格致餘論, 北京,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11. 柳泰佑 : 運氣體質總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4.
12. 李鐘切 : 永遠한 人間象, 서울, 新丘文化社, 1968.
13. 申泰英 : 進明類纂, 충남, 충남서관, 李朝古書.
14. 李光洙 : 元曉大師, 서울, 경향신문사, 단기4289.
15. 尹東理 : 草窓訣,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4.
16. 李殷相 : 師任堂과 栗谷, 서울, 성문각, 1973.
17. 龔延賢 :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4.
18. 신영훈 : 우리한옥, 서울, 현암사, 2000.
19. 王肯堂 : 六科準繩,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 68年.

20. 張介賓 : 景岳全書,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 69年.
21. 李東旼 : 심마태중교육, 서울, 연구자, 1973.
22. 유안진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정민사, 1980.
23. 東醫寶鑑 국역위원회 :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76.
24. 이규태 : 저민한국사, 서울, 샘터사, 1976.
25. 李東旼 : 胎中教育, 서울, 흐름사, 1982.
26. 師朱堂 完山李氏 : 前掲書, 第一章 只言教學.
27. 김태동 : 모성보건의 실제, 서울, 가족계획 연구원, 1937.
28. 주정일 : 아동 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0.
29. T. Verny : 胎兒는 알고 있다(The Secret of the unborn child), 주정일 감수, 서울, 샘터사, 1983.
30. 繁多進 : 父親のやるべきこと則, 동경, 사시마크出版, 1983.
31. 張介賓著 李泰均編 : 婦人規, 서울, 法仁文化社, 1999.